

국정원 국조특위 오늘부터 기동 ▶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주·전남 교장공모제 겟돈다 ▶7

[kwangju.co.kr](http://kwangju.co.kr)

다리로 연결된 섬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13

제19532호 1판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음력 6월 11일)



## U대회, 이젠 광주다

2015년 재회 기약, 러시아 카잔대회 폐막

### 강운태시장 대회기 인수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 27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2015년 광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대회기 전달식과 화려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3·4면〉

17일 밤 10시(현지시간) 카잔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은 수천 명에 이르는 각국 선수단의 화려한 입장으로 시작됐다. 카잔 조직위가 마련한 각종 공연이 끝나자 유니버시아드 참가자 물러 펴지는 가운데 대회기 기념행사가 내려졌으며, 차기 대회 개최도시가 광주임을 공식선포하는 대회기 인수식과 함께 폐막식 절정을 이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차기 개최도시 시장 자격으로 폐막식에 참석, 카잔의 이수르 메친(Issur Metshin) 시장이 반한 대회기를 클로드 류이 갈

리앙(Claude-Louis Gallien)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다음 대회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강 시장은 대회기 인수 후 공식 연설을 통해 “광주U대회를 친환경(Eco-versiade), 평화(Peace-versiade), 최첨단 IT(Techno-versiade), 문화(Culture-versiade)를 담은 에픽(EPIC) 대회로 치뤄내겠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어 광주를 홍보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이 4막으로 10여분간 펼쳐졌다.

국악인 박애리씨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류스타 액소(EXO), 광주시립국극단, 카잔 현지 고려인 출연진은 한국의 K-pop과 전통국악공연이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마지막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광양항 입항

무게 16만5000t, 길이 399m, 폭 59m, 높이 73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마스크 맥킨니 몰러(Maersk MC-Kinney Moller)'호가 17일 개항 15주년을 맞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처음 입항해 선적작업을 하고 있다. 총구장 4개를 합친 면적의 이 배는 앞으로 광양항에 정기 기항해 연간 약 16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내일 결정

## 광주 대규모 유치단 출국 막판 총력전

광주시가 2019년 제 18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유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막판 유치활동에 온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의회의원, 유치위원, 시민사회단체표, 기자단,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의 광주시 유치대표단은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수영연맹(FINA) 총회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출국한다.

단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정행 대체육회장은 러시아 카잔에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기를 인수받은 뒤 바르셀로나 현지에 합류한다.

현재 외교부 등 청부부처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 주재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칠현한 물밀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지 교포 등도 응원단을 구성해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PT는 인사말, 준비상황 설명, 마케팅 운영 계획 설명 등 순서로 이어지고 실감나는 3D 그래픽 영상으로 광주의 경기장 시설 등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게 된다.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하는 FINA 집행위원회 21명(헝가리 집행위원장 1명 제외)의 출신지는 유럽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4명, 북미와 남미 각 3명, 오세아니아 4명이다. 이 가운데 과반수인 11표 이상을 얻으면 개최지로 선정된다.

최종 개최도시 발표는 19일 낮 12시 30분~1시 사이로 예상되며,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후 7시 30분~8시 사이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전두환 은닉재산 찾기 13곳 추가 압수수색

### 검찰, 일가 자산 최대 1조원 추정…비자금 차명 관리 정황 포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위해 이를 통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측의 직계존속과 친인

척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최소 수천 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조성경위가 불투명한 이 막대한 자산의 ‘뿌리’가 전씨의 숨겨진 비자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범의의 주장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물려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주장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 또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 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대학원 062-605-1115

문의 학부 062-605-1114

광신 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가세요!

###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7월 27일, 30일, 8월 2일, 5일 2박 4일(총 4회)

[CHPF05-NX1]  
\*마카오직항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

\*특전 : 애플리트  
\*특수 : 양자석 포토풀강식

[CHPF05-NX2]  
\*성직승 30명\*  
마카오/홍콩/심천 4일 799,000원 ~

\*출발일 : 7월 27일, 30일

\*특전 : 심천 직항  
\*특수 : 양자석

\*특전 : 마카오/홍콩 전용식당自卑사료

\*특수 : 마카오/홍콩 전용식당自卑사료

\*특전 : 마카오/홍콩 전